

제29호(2012.9.13)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

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1. 금년도 과일 생산량 전망	3
2. 추석 과일 공급량 전망	5
3. 소비자의 추석 과일 구입 의향	7
4. 추석 과일 가격 전망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박기환 연구위원	02-3299-4331	kihwan@krei.re.kr
내용 문의:	한재환 부연구위원	02-3299-4352	jghan@krei.re.kr
자료 문의:	원동환 전문원	02-3299-4274	wondh@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 약 ◇

지난 10년간 과일 재배면적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음. 사과 재배면적은 2003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올해는 작년보다 다소 감소함. 배의 경우,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음. 8월 말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피해가 있었지만, 배를 제외한 사과, 감귤, 단감, 포도, 복숭아 생산량은 작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배는 태풍으로 낙과 피해가 심하여 생산량은 1997년 이래 최저 수준인 22만 톤으로 전망됨.

태풍에도 불구하고 추석 성수기에 과일 공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예상됨. 작년보다 추석이 18일 늦어, 사과는 9월 중순부터 후지조숙계, 시나노스위트, 양광, 감홍 등의 출하가 가능하여 공급량이 증가할 것임. 배는 9월 상순에 출하되는 물량이 작년보다 적지만, 중순부터 경기·충청지역의 신고 출하가 본격화되어 추석 성수기에 공급 부족 현상은 완화될 것임. 단감의 추석 성수기 공급량은 작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소비자 5명 가운데 4명은 ‘가정용’ 소비를 위해, 2명 중 1명은 ‘선물용’ 소비를 목적으로 과일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추석선물로 과일이 다른 아이템에 비해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사과·배 혼합세트’가 ‘가정용’과 ‘선물용’ 모두 수요가 높았음. 올해 소비자가 추석에 구입하는 과일 물량은 작년과 비슷하며, 과일 평균 구입비는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조사됨.

일반적으로, 추석 성수기에 사과, 배의 특품 가격이 추석 이후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음. 이는 추석 성수기에 제수용품과 선물용 수요가 많기 때문임. 반면, 추석 이후에는 가정용 수요가 많아 중품 가격이 추석 성수기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2012년 추석 성수기의 사과 홍로(상품 15kg) 도매가격은 4만 6천~5만 원으로 작년(4만 6천 원)보다 높을 전망이다. 배 또한 신고(상품 15kg) 도매가격이 4만 1천~4만 5천 원으로 예상되어 작년 성수기(4만 원)보다 강세가 예상됨. 단감(서촌, 상품 10kg)의 경우, 올해 공급량이 많아 작년 성수기 가격(4만 9천 원)보다 낮게 형성될 전망이다.

1. 금년도 과일 생산량 전망

1.1. 재배면적 및 생산량

□ 2012년 과수 재배면적은 작년 대비 1% 감소

- 과수 재배면적은 2000년대 후반에 증가하였으나 2010년 이후 다시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금년에는 작년보다 1,500ha 감소한 16만 ha 수준
 - 복숭아를 제외한 5대 과수 재배면적이 감소 추세
 - 배 재배면적은 2000년 2만 6천 ha까지 증가한 후, 계속 줄어 2012년 1만 4천 ha로 작년보다 4.8% 감소

표 1. 과수 재배면적 동향

단위: 천 ha, %

구 분	2000	2003	2005	2008	2010	2011	2012	증감률 ('12/'11)
전체	172.8	162.9	154.7	155.5	162.5	161.2	159.7	-1.0
사과	29.1	26.4	26.9	30.0	31.0	31.2	30.7	-1.4
배	26.2	24.1	21.8	18.3	16.2	15.1	14.4	-4.8
감귤	26.8	24.6	21.5	21.2	21.1	21.4	21.4	-0.3
단감	23.8	19.6	17.2	16.3	15.2	14.3	13.4	-6.4
포도	29.2	24.8	22.1	18.2	17.6	17.4	17.2	-1.5
복숭아	13.9	15.9	15.0	12.6	13.9	13.8	14.3	3.9
기타	23.8	27.6	30.2	38.8	47.4	48.0	48.3	0.6

자료: 통계청

□ 2012년 과일 생산량은 배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1.6% 감소 전망

- 금년도 주요 과일 생산량은 태풍 피해로 배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작년 대비 1.6% 감소한 194만 5천 톤이 될 것으로 전망
- 배의 경우 재배면적 감소와 8월의 태풍 피해로 생산량이 작년 대비 24.7%나 감소한 22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사과나 단감 등은

전반적인 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수 증가로 생산량이 작년보다 0.9~4.4% 내외 증가할 전망

표 2. 2012년 과일 생산량 전망

단위: 천 톤, %

구 분	2000	2003	2005	2008	2010	2011	2012	증감률 (12/11)
전체	2,250	2,043	2,290	2,317	2,008	1,976	1,945	-1.6
사과	489	365	368	471	460	380	383	0.9
배	324	317	443	471	308	290	219	-24.7
감귤	563	632	638	636	615	681	695	2.2
단감	227	163	236	216	181	172	177	3.0
포도	476	376	381	334	306	269	281	4.4
복숭아	170	189	224	189	139	185	191	3.0

주: 2012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추정치

자료: 통계청

1.2. 태풍 피해 영향

□ 8월의 태풍 피해로 사과 중생종 생산량 감소

○ 사과 생산량은 작년(38만 톤) 수준은 유지하겠으나, 홍로 등 중생종은 감소할 전망

- 8월 29일 태풍 불라벤에 의한 생산량 감소는 1만 7천 톤(홍로 4천 8백 톤, 후지조숙계 2천 3백 톤, 후지 9천 5백 톤 등)으로 추정
- 품종별로는 추석 출하를 앞둔 홍로의 피해가 가장 컸고, 10월 말부터 출하되는 후지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음

표 3. 사과 품종별 생산량 증감률(작년대비)

단위: %

구 분	후지	쓰가루	홍로	후지조숙계	양광
태풍 이전	6.8	1.7	4.3	3.8	0.5
태풍 이후	2.4	1.3	-4.4	-1.0	-1.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추정치

□ 8월의 태풍으로 배가 가장 큰 피해 입어

- 배 생산량은 태풍으로 낙과 피해가 커 작년보다 24.7% 적은 22만 톤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1997년 이후 최저 수준
 - 태풍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7만 3천 톤(신고 6만 3천 톤, 원황 2천 5백 톤 등)에 달할 것으로 추정
 - 특히 태풍 피해가 심했던 호남지역의 생산량은 작년보다 50.4% 감소

표 4. 배 품종별 생산량 증감률(작년대비)

단위: %

구 분	신고	원황
태풍 이전	0.7	-3.4
태풍 이후	-26.2	-14.2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추정치

2. 추석 과일 공급량 전망

2.1. 9월 공급량

□ 올해 9월 사과와 단감 공급량은 작년 대비 증가, 배는 감소

- 9월 상순 사과 공급량은 태풍 피해로 홍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작년보다 크게 적었으나, 다른 품종의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9월 전체 공급량은 작년보다 15.6~21.6% 많은 7만 9천~8만 3천 톤으로 예상
- 당초 9월 배 공급량은 작년보다 추석이 늦어(18일) 작년 대비 4.5%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태풍으로 낙과 피해가 심해 작년보다 6.2~10.8% 적은 5만 4천~5만 7천 톤 예상
- 9월 단감 공급량은 작년보다 18.5~19.5% 많은 5천 8백~6천 1백 톤 예상
 - 추석이 늦고, 숙기가 작년보다 빨라 서촌뿐만 아니라, 상서·태추·부유까지 출하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

2.2. 추석 성수기 공급량

□ 태풍에도 올해 추석 성수기 과일 공급은 안정적인 듯

- 사과 추석 성수기 공급량은 작년보다 3.0~8.2% 많은 5만 1천~5만 4천 톤 예상
 - 9월 중순부터 후지조숙계(료카, 히로사키, 홍장군), 시나노스위트, 양광, 감홍 등의 출하가 시작되면서 공급량 증가
- 배 추석 성수기 공급량은 작년보다 0.5~5.1% 많은 4만 9천~5만 1천 톤 예상
 - 9월 상순 출하는 작년보다 적지만, 중순부터 경기·충청지역의 신고 출하가 본격화됨에 따라 공급 부족 현상은 완화
- 단감 추석 성수기 공급량은 작년보다 88.6~98.2% 많은 4천 5백~4천 7백 톤 예상¹⁾

표 5. 9월 및 추석 성수기 과일 공급량 전망

단위: 천 톤, %

구 분		사과	배	단감
9월	2012	79~83	54~57	5.8~6.1
	2011	68.0	61.2	4.9
	평년	76.4	105.2	5.3
	증감률('12/'11)	15.6~21.6	-6.2~-10.8	18.5~19.5
추석 성수기 (추석 전 2주)	2012	51~54	49~51	4.5~4.7
	2011	49.7	48.9	2.4
	평년	53.4	86.1	3.9
	증감률('12/'11)	3.0~8.2	0.5~5.1	88.6~98.2

주: 평년은 2007~2011년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9월 3일 추정치

1) 올해와 비슷하게 추석 시기가 늦었던 해(2002, 2005, 2009년도)의 추석 성수기 공급량은 전년 대비 111.8~252.3% 증가함

3. 소비자의 추석 과일 구입 의향

3.1.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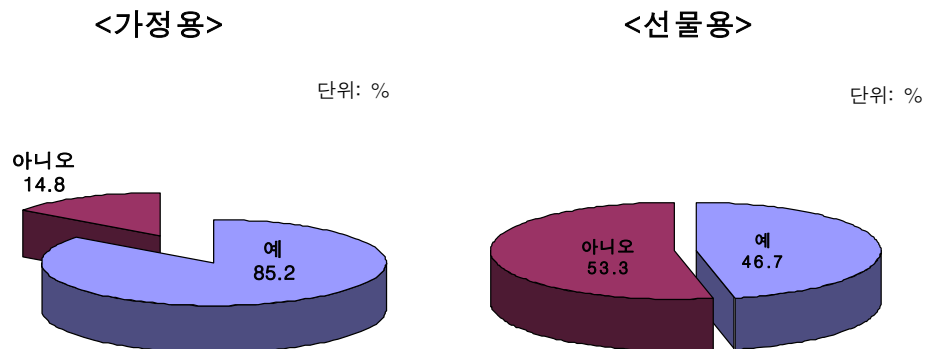
- 추석(2012년 9월 30일) 과일 소비에 대한 소비자 구입의향 조사 시행
 - 조사기간: 2012년 9월 5일
 - 조사대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646명
 - 조사방법: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조사
 - 표본오차: $\pm 4.27\%$ (95% 신뢰 수준)
- 응답자 특성
 -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응답자가 270명(41.8%)으로 가장 많고, 인천 76명 (11.8%), 부산 65명(10.1%) 순
 - 연령대는 40대 응답자가 40.9%, 30대 23.1%, 50대 21.2% 순
 - 소득은 월 300만 원대 31.0%, 400만 원대 22.8%, 200만 원대 20.0% 순

3.2. 조사결과

☐ 응답자의 46.7%가 ‘선물용’ 과일 구입할 의향

-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85.2%는 올 추석에 ‘가정용’ 소비를 위해 과일을 구입할 의향이 있음
- 반면, 추석에 ‘선물용’ 소비를 위해 과일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46.7%로 가정용 소비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가정용' 및 '선물용' 소비의 과일 구입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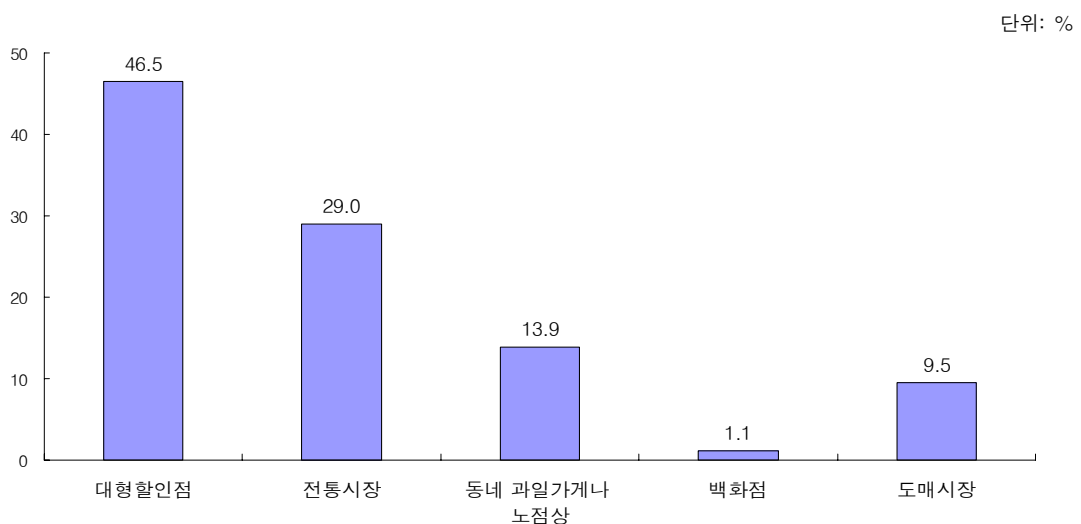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패널 조사치, 2012. 9.

□ 추석 과일 구입처는 '대형할인점'과 '전통시장' 비중이 높아

- 추석 명절에 과일을 구입하고자 하는 장소로 '대형할인점'(46.5%)의 비중이 가장 높음
- 그 외에 '전통시장'(29.0%), '동네 과일가게나 노점상'(13.9%), '도매 시장'(9.5%) 순임

그림 2. 추석 명절 과일 주 구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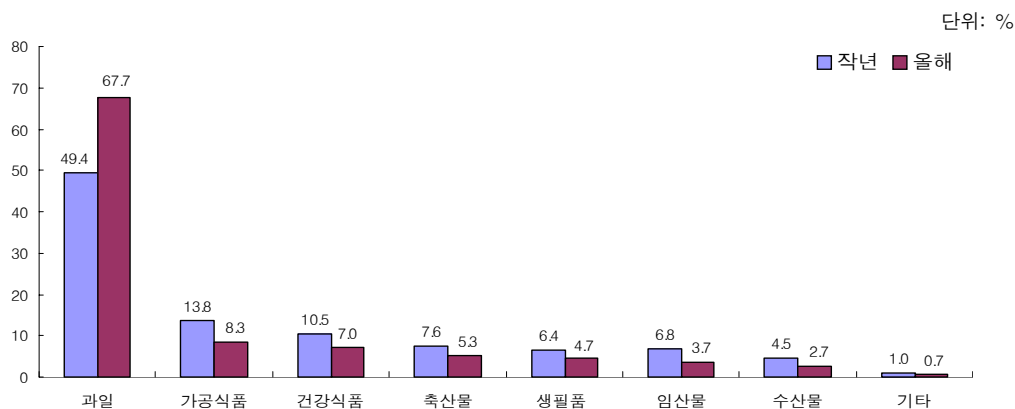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패널 조사치, 2012. 9.

□ 추석 선물로 ‘과일’을 가장 선호

- 응답자의 2명 중 1명은 작년에 추석 선물로 ‘과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그 뒤를 이어 ‘가공식품’(13.8%), ‘건강식품’(10.5%) 순임
- 올해 추석 선물로 ‘과일’을 구입하겠다는 응답률은 67.7%로 작년(49.4%)보다 높게 나타나 가공식품, 건강식품 등 타 품목에 비해 수요가 증대한 것으로 보임

그림 3. 추석 선물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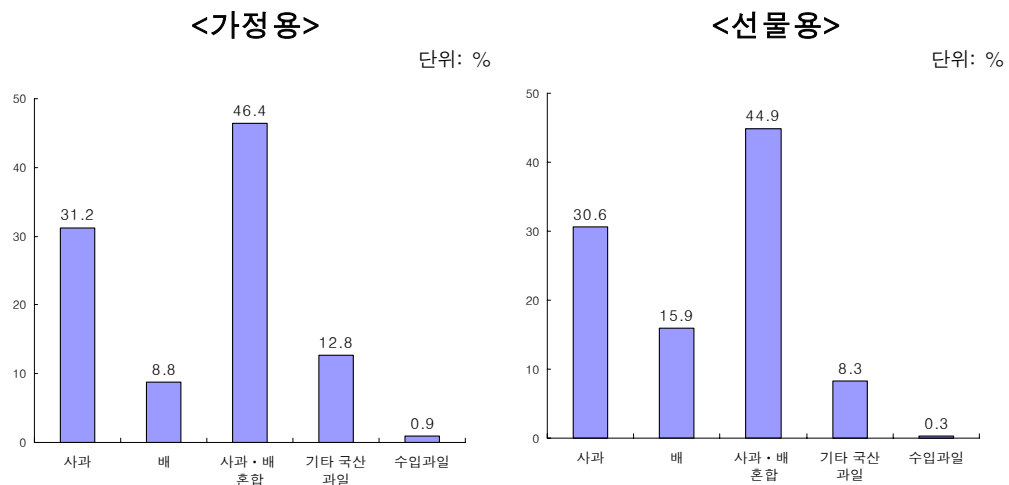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패널 조사치, 2012. 9.

□ ‘가정용’ 및 ‘선물용’ 과일 수요는 ‘사과·배 혼합세트’가 가장 많아

- 추석맞이 ‘가정용’ 소비로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일 품목은 ‘사과·배 혼합’(46.4%)으로 조사됨
 - 그 다음으로 ‘사과’ 31.2%, ‘배’ 8.8%, ‘기타 국산과일’(포도, 복숭아, 감귤 등) 12.8% 순임
- 추석 ‘선물용’ 과일로는 ‘사과·배 혼합’과 ‘사과’가 각각 44.9%, 30.6%, 그리고 ‘배’ 15.9%로 조사되어, ‘가정용’ 소비를 위한 과일 수요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 배의 경우, ‘선물용’의 소비가 ‘가정용’ 소비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4. 추석 과일 선호 품목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패널 조사치, 2012. 9.

□ 올해 추석선물 구입량은 작년과 비슷

- 응답자의 절반은 ‘가정용’과 ‘선물용’ 과일 구입량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음
- 그러나 ‘가정용’ 및 ‘선물용’ 모두 작년보다 구입량을 ‘줄이겠다’는 비중이 ‘늘리겠다’보다 높게 나타남

표 6. 추석 ‘가정용’ 소비를 위한 과일 구입량

단위: %

구 분	사과	배	사과·배 혼합	기타 국산과일	수입과일
20% 이상 늘림	1.9	0.4	0.8	1.6	0.7
10~19% 늘림	9.1	4.3	5.4	13.6	6.3
작년과 비슷	56.8	54.6	59.4	56.2	48.2
10~19% 줄임	26.8	32.6	24.5	20.9	23.9
20% 이상 줄임	5.4	8.1	10.0	7.7	21.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조사치, 2012. 9.

표 7. 추석 '선물용' 소비를 위한 과일 구입량

단위: %

구 분	사과	배	사과·배 혼합	기타 국산과일	수입과일
20% 이상 늘림	2.2	0.7	0.4	0.4	0.0
10~19% 늘림	11.1	8.5	10.8	12.0	6.5
작년과 비슷	57.0	57.4	59.0	50.8	40.2
10~19% 줄임	25.1	25.9	23.7	28.7	29.3
20% 이상 줄임	4.7	7.4	6.1	8.1	24.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조사치, 2012. 9.

□ 과일 평균 구입비는 작년보다 높아

- 추석 과일의 '가정용' 소비를 위한 구입비는 평균 9만 원으로 작년보다 5.3% 증가하고, '선물용'은 3.7% 증가한 13만 원으로 조사됨

표 8. 추석 과일 구입 지출액

단위: 만 원, %

구 분		작년 추석	금년 추석	증감률
지출액	가정용	8.9	9.3	5.3
	선물용	12.6	13.1	3.7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조사치, 2012. 9.

4. 추석 과일 가격 전망

4.1. 과거 추석 과일 가격 패턴

□ 추석 성수기 가격은 성수기 전보다 사과와 배는 낮은 경향

- 평년(2007~2011년) 추석 성수기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15kg에 사과(홍로) 3만 6천 원, 배(신고) 3만 3천 원임
 - 추석 성수기 도매가격은 추석 성수기 전 2주와 비교하여 사과는 38.5% 하락, 배는 22.0% 상승

- 사과, 배 등 제수용 과일은 명절 시기에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으나, 사과는 2009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추석 성수기 가격이 추석 성수기 이전보다 낮았음

- 추석용 사과 주 품종인 홍로는 8월 중순부터 출하가 시작되어 추석에 성출하가 되므로, 추석 성수기 가격은 그 이전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음
- 하지만, 추석용 배 주 품종인 신고는 만생종으로 추석시기에 맞춰 첫 출하가 이루어지고, 선물과 제수용도의 소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추석 성수기 가격이 높게 형성됨

표 9. 추석 성수기 과일 도매가격

단위: 원/15kg,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평년
추석시기		9월 25일	9월 14일	10월 3일	9월 22일	9월 12일	-
사과 (홍로 상품)	가격	39,504	30,760	31,697	54,410	45,826	36,117
	추석효과	-24.5	-53.3	3.2	-24.6	-43.5	-38.5
배 (신고 상품)	가격	30,599	26,891	26,644	40,243	40,171	32,553
	추석효과	-16.0	15.5	19.3	62.7	25.4	22.0

주 1: 추석효과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 가격 / 추석 성수기 전 2주 가격

주 2: 평년은 2007~11년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추석 성수기에는 특품, 추석 직후에는 중품 가격 높아

- 추석 성수기와 추석 성수기 이후 등급 간 가격 차이를 비교한 결과(상품=100%), 추석 성수기에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수요가 많아 특품 가격이 추석 이후보다 높게 형성
 - 추석 성수기 사과, 배의 특품 평년가격은 상품 대비 각각 162.5%, 131.1%로 추석 성수기 이후와 비교하여 각각 24.2%p, 5.1%p 높아
- 추석 이후에는 가정용 수요가 많아 중품 가격비율이 추석 성수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추석 성수기 이후 사과, 배의 중품 평년가격비율은 각각 71.2%, 76.3%로 추석 성수기와 비교하여 각각 2.9%p, 13.1%p 높아

표 10. 추석 성수기 등급간 가격 비교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평년
사과	특품	142.5	168.7	140.8	186.1	190.6	162.5
	상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품	71.6	65.5	71.8	66.1	65.0	68.3
	하품	43.8	41.2	51.8	40.9	36.1	42.6
배	특품	117.4	134.1	121.9	137.3	144.6	131.1
	상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품	73.3	61.4	74.3	54.0	54.9	63.2
	하품	42.9	34.5	49.4	30.2	29.2	35.9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표 11. 추석 직후(2주간) 등급간 가격 비교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평년
사과	특품	137.0	132.8	141.0	141.3	130.3	138.3
	상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품	70.7	74.0	65.6	73.7	78.3	71.2
	하품	41.9	43.8	37.3	45.1	51.3	42.3
배	특품	121.5	130.6	121.0	127.0	129.6	126.0
	상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품	75.4	68.7	82.2	75.7	77.7	76.3
	하품	49.6	42.7	57.4	51.2	51.5	50.8

주: '추석 성수기 이후'는 추석 후 14일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4.2. 2012년 추석 과일 가격 전망

□ 올해 추석 성수기 사과와 배 가격은 작년보다 높고, 단감은 낮을 듯

- 추석 성수기 사과 홍로 도매가격은 상품 15kg에 4만 6천~5만 원으로 작년 성수기(4만 6천 원)보다 높을 전망²⁾
 - 추석 성수기 공급량은 작년보다 많겠으나, 품질이 좋고 대과 물량이 적을 것이기 때문
 - 9월 상순 가격은 홍로의 낙과 피해로 작년보다 크게 높았지만, 중순 이후로 가격은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 추석 성수기 배 신고 도매가격은 상품 15kg에 4만 1천~4만 5천 원으로 작년 성수기(4만 원)보다 높을 전망
 - 추석 성수기 공급량은 작년보다 다소 많겠으나, 태풍으로 추석 수요가 많은 신고의 대과 낙과가 많아 특·상품과 중·하품간의 가격 차이가 커질 것이기 때문
 - 9월 상순에는 공급이 적지만,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경기·충청지역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가격은 안정화될 전망
- 추석 성수기 단감 서촌 도매가격은 공급량이 많아 작년 성수기(4만 9천 원)보다 낮은 상품 10kg당 3만 2천~3만 5천 원으로 전망

2)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 도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과거 10년 가락시장 일일 도매가격과 반입량, 추석 효과를 감안함.

< 부록 > 9월 및 추석 성수기 과종별 출하

□ 9월 평년 출하비중은 사과 16.8%, 배 26.0%

- 최근 5개년(2007~2011년 평균) 9월 청과물 공급에서 과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임. 청과물 공급 대비 사과, 배의 비중은 각각 3.9%, 4.0%임
- 과종별 생산량 대비 9월 평년 출하비중은 사과 16.8%, 배 26.0%, 단감 3.1%임

부표 1. 과종별 생산량 대비 9월 출하비중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사과	16.6	16.7	21.1	17.0	17.9	16.8
배	28.8	25.2	31.4	23.9	21.0	26.0
단감	2.7	3.7	3.5	2.6	2.9	3.1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반입량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 최근 5년간 추석 성수기 과일공급 대비 사과, 배의 비중은 각각 20.4%, 25.0%

- 최근 5개년(2007~2011년 평균)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 9.16~29) 전체 과일공급에서 사과, 배의 비중은 각각 20.4%, 25.0%임
- 추석 성수기 단감의 공급 비중은 1.3%임

부표 2. 추석 성수기 공급 비중(전체 과일공급 대비)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사과	19.8	20.7	19.5	24.0	17.9	20.4
배	33.9	25.2	24.7	23.4	17.8	25.0
단감	1.8	1.0	2.1	0.9	0.8	1.3

주: 과일은 과채류, 수입과일을 포함한 것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반입량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2012년

-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최세균, 전형진, 정대회)
-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 (국승용)
-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종현)
-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 제16호 견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회)
-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2011년

-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승준호)
-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KREI 농정포커스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2. 9. 12
발 행 2012. 9. 13
발 행 인 이동필
편집위원 김정호, 박준기, 이명기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